

국민의힘은 시비걸기 그만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협조하라

담당자 | 공용재 총괄간사 010-2388-2109 (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)

배포/엠바고 | 즉시 | 분량 | 총 2장 (사진없음)

“국민의힘은 시비걸기 그만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협조하라”

- 지난 23일, 문화일보는 ‘단독보도’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최혁진 상임위원장이 공공기관 임원임에도 겸직허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불법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.
-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. 최혁진 상임위원장이 이사로 재직 중인 보훈공단은 규정 상 공단의 이름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개인적인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.
- 또한 최혁진 상임위원장의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은 무보수 비상근이며, 공단 근무시간 이외에 해당하고, 보훈공단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없으며, 공단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등 겸직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.
- 뿐만 아니라, 최혁진 상임위원장은 이미 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겸직에 대해 2022년 8월 28일까지 기관장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. 전국사회적경제

위원회가 선대위에 편입되면서 직제를 개편하여 직책이 변경된 것일 뿐 새로운 조직에 임명된 것이 아니다.

- 문화일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최혁진 상임위원장과 보훈공단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, 일단 기사를 내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를 보여주었다.
- 한편 국민의힘 또한 모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고, 불법이라며 최혁진 상임위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였다. 어떻게든 여당 후보 및 여당 선대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.
- 국민의힘은 이런 것에 관심 기울일 것이 아니라,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경제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부터 협조하기 바란다.
- 무려 8년째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민의 힘은 빨갱이법, 사회적경제 퍼주기법 등으로 매도하고 있으며, 이번 국회에서도 의도적인 외면전략으로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.
- 8백만 국민이 이용하거나, 재직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의 염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또다시 외면하고 무시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.

끝.